“종교갈등, 정부 조치 매우 우려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황식 총리 면담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 있다” 상황 인식

박선규 차관 발언에 안이함 심각성 지적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월27일 취임인사차 예방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축하인사를 건네고 “공정한 사회와 서민을 위한 사회를 위해 일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신교계의 불교폄훼에 대한 정부 당국자와의 인식차로 인해 분위기가 경색되기도 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한 타종교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월27일 취임인사차 예방한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촬영과 간단한 인사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과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최근 ‘봉은사 땅밟기’와 ‘KTX 울산역의 통도사 부기(附記) 저지’ 등 개신교계의 공격적인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양식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최근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자칫 종교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불교계는 인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일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자리에 배석한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박선규 제2차관은 “어느 집단이든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종무실장을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 보내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일부 소수의 과격한 사람 때문이라는 상황인식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불교계가 많은 인내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총무원장 스님과 집행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한 개신교의 상식을 벗어난 공격적인 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교간 갈등과 대립을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의 강한 입장 표명에 대해 박선규 제2차관은 “그런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분위기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최근 케이블 방송을 통해 인기스타로 등장한 가수 허각, 존박 씨의 사례를 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배경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허각이란 ‘친구’가 성실함을 바탕으로 성공신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서민 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으니, 그 과정을 보고 받으셔서 공정한 사회와 서민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원칙이 확립돼야 하고, 그 책임은 공공분야 뿐 아니라 사적(私的)인 분야도 마찬가지”라면서 “특히 종교, 불교의 역할이 크다.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지금까지 나라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해온 불교가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김황식 총리의 총무원장 스님 예방에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수행했다. 총무원에서는 총무부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원담스님, 재무부장 성월스님, 문화부장 효탄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이 배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2011 신춘문예 공모 11월15일~12월15일 www.ibulgyo.com

“마애보살상 훼손 책임자 문책하라” 영산강 문수선원 성명

영산강 문수선원(선원장 법선스님)은 지난 10월23일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서 발견된 마애보살좌상 훼손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번 낙동강 마애보살상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문화재 부실조사와 훼손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문수선원은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구간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마애보살상에 드릴 구멍이 뚫리고 온몸에 굴착기에 긁힌 자국이 난 채 공개돼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수선원은 “국토관리청과 시공사는 토사작업 중 감지된 암벽의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었다고 해명했지만 흙을 다 털어내기도 전에 대형 드릴을 흙에 들이댈 수는 없는 일”이라며 “흙을 털어낸 뒤 마애불을 인지하고도 구멍을 뚫은 게 아닌가 하고 전문가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수선원은 이어 “고의적인 훼손이 아니더라도 4대강 공사구간의 문화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일어난 훼손”이라고 전제하며 “대다수 국민과 종교계의 반대를 묵살한 채 강행하고 있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지사=진재훈 기자 365life@ibulgyo.com

‘마애불’ 〈1면에 이어〉

문명대 교수는 이와 함께 “당시 마애보살상 앞으로 대로가 놓여 지나던 행인들이 보살상 앞에 예를 올리며 안녕과 행복을 빌었을 것”이라며 “아마도 근처에 대찰(大刹)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화쟁위원회 위원이자 구미 도리사 주지인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스님은 공원식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총무원장 스님은 국민적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합리적 대안 도출과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애보살좌상을 참배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낙동강살리기 공사현장 영상관에 들러 공사의 취지와 개요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으며 낙단보 공사현장 전경을 둘러본 뒤 상경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현장방문은 총무원 문화부장 효탄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법응스님, 박기련 총무원장 종책특보 등이 수행했다.

‘개신교 동영상’ 〈1면에 이어〉

이와 관련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0월27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소수 과격한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발언을 질책하면서 정부의 정확한 현실인식을 촉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종교편향 행위를 일부 과격한 사람들의 소행으로 치부하면 곤란하다”며 “기독교계의 압력으로 불교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이 온다면 종단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강한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단의 종교편향 대응기구인 종교평화위원회는 10월27일 ‘최근 일부 개신교 단체의 사회갈등 유발행동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개신교의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불교 비방을 비판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개신교 지도자들의 진정어린 성찰과 책임 있는 재발방지를 위한 역할이 있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라며 “정부당국은 다시 한번 종교차별, 종교갈등 유발 행위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北 주민 돕기 햅쌀 30톤 전달

종단협, 수해피해 지원 위해 5천만원 상당

지난 8월 대규모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불교계가 모은 구호품이 북측에 전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종단협 사무총장),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무원스님 등 각 종단 대표들은 지난 10월27일 서울 조계사에서 ‘북한 수해 피해 복구 물품 지원’ 상차식(上車式)을 거행했다. 이날 북측에 보낸 물품은 햅쌀 30톤으로, 조계사를 출발한 차량이 남북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됐다. 지원금액은 수송비 포함 5000만원이다.

이에 앞서 종단협은 지난 9월28일 이사회를 개최해 대북 수해피해 지원을 결의했다. 종단협은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 지역에 대규모 수해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을 위한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에서 미곡(米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남북불교 교류 한눈에 본다

민추본 ‘60년사’ 발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스님)는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불교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을 맞아 남북간의 불교교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연구보고서 〈남북불교 교류의 흐름 : 남북불교 교류 60년사〉를 최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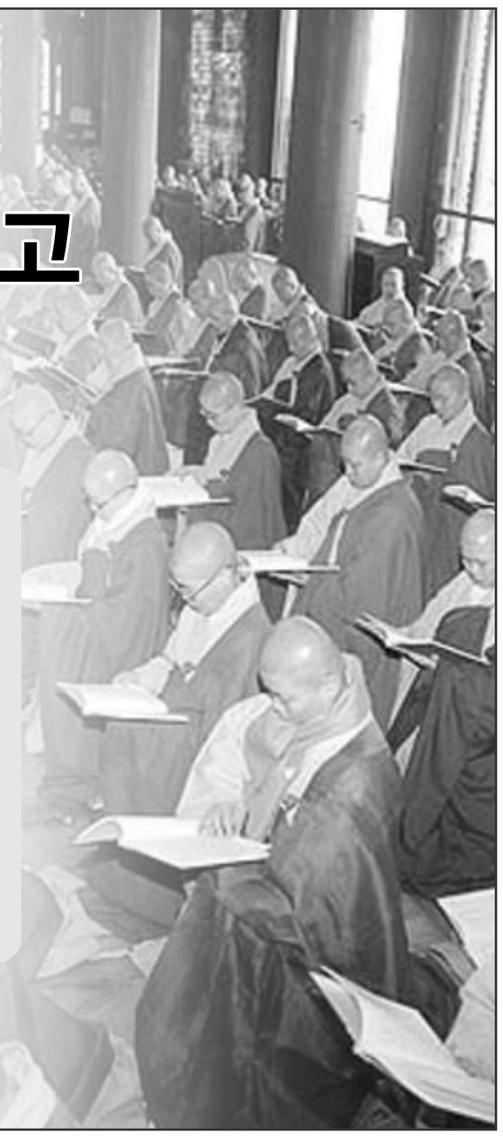
민추본은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분단 이후 60여 년의 모든 남북불교 교류사를 총망라, 정리하고 그 성과를 계승, 향후 남북불교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추본은 또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을 맞아 그 간의 감격적인 만남들과 노력들을 돌아보며 남과 북의 화해를 염원하고 금강산 관광과 순례길이 하루 빨리 재개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주요 사찰 및 승가대학, 불교대학,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교계 단체 및 통일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불기2554(2010)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및 승려복지 시행을 위한 기본조사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4(2010)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승려복지 시행을 위한 기본조사를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계신고

■ 신 고 일 : 불기2554(2010)년 11월 10일(수 음력 10.5) ~ 11월 20일(토 음력 10.15)

■ 신고장소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 신고방법
-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종 관장 하에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포 살

■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동시충족)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승려복지 시행을 위한 기본조사

이 조사는 종단차원의 승려복지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체계적인 승려복지 시행을 위한 조사인만큼 별첨서식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식〉 승려복지 시행을 위한 기본조사표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시행령 별표1 :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문과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4(2010)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